

癸未字本 『四時纂要』의 書誌的 研究

An Bibliographic Analysis on the Gyemi Metal Type Sasichanyo

남 권 희(Kwon-Hee Nam)*

<목 차>

I. 서론	V. 계미자본 『四時纂要』의 특징과 본문 對校
II. 계미자본 『四時纂要』의 물리적 형태 와 구성 체제	1. 形態書誌學的 분석
1. 물리적 형태	2. 體系書誌學的 분석
2. 구성 체제와 수록내용	3. 原文書誌學的 분석
III. 찬자와 성립 및 유통	VI. 癸未字의 구조 기록과 현존본
IV. 『四時纂要』의 1590년 간행본과 조선 시대 사료 기록	1. 계미자의 구조 기록
1. 1590年 慶尙左兵營 刊行本	2. 癸未字의 現存本
2. 史料記錄	VII.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대상본인 계미자본 『四時纂要』는 조선 초기 鑄字所에서 太宗의 명에 의하여, 鑄造된 활자인 癸未字(1403-1420)를 이용하여 인출 및 간행된 農書이다. 이제까지 동북아에서 알려진 『四時纂要』의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간행본이며 본문의 내용은 月令式 農家雜錄이 수록되어 있고, 그 주제는 ‘농업’, ‘농부산품 가공’, ‘의약 위생’, ‘기구수리 보관’, ‘상업 경영’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四時纂要』를 소개하고 분석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파악한 후에 나아가 판본간의 비교, 계미자 小字의 字形, 組版技術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책의 印面을 중심으로 글자를 小字, 特小字, 極小字로 구분하여 그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계미자, 계미자소자, 계미자극소자, 계미자특소자, 사시찬요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gricultural book Gyemi Metal Type *Sasichanyo* which was produced in Jujaso (鑄字所), by early Joseon dynasty's king Taejo(太宗). It is the most advanced edition of *Sasichanyo*(『四時纂要』) among whole east-northern Asia, which contains miscellanies about monthly agricultural plan(月令式 農家雜錄) and the themes are; agriculture, production-spin-off processing, sanitation and medicine, tool fixing and conservation, business management.

This research divided all letters appeared in Gyemi metal type *Sasichanyo*(『四時纂要』) by three categories; small letters, smaller letters, smallest letters to define its'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and estimated the value of *Sasichanyo*(『四時纂要』). Also in the aspect of typeface of letters and typesettings, this study compared all editions of *Sasichanyo*(『四時纂要』) with Gyemi metal type *Sasichanyo*(『四時纂要』).

Keywords: Gyemi Metal Type, Small Letters of Gyemi Metal Type, Smaller Letters of Gyemi Metal Type, Smallest Letters of Gyemi Metal Type, *Sasichanyo*(『四時纂要』)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논문접수: 2018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8년 6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25-58, 2018. [http://dx.doi.org/10.16981/kliiss.49.201806.25]

I. 서론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계의 출판문화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찍이 고려에서 태동되어 조선시대 초기를 거치는 동안 조상들의 과학적 지식과 지혜가 보태어져 끊임없는 개량과 발전을 거듭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證道歌』와 『直指』로 대표되는 고려 금속활자의 구조와 인쇄 기술이 조선초기에 어떻게 전해져 활용 계승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또한 당시의 기록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대상본인 계미자본 『四時纂要』는 조선 초기 鑄字所에서 太宗의 명에 의하여, 鑄造된 활자인 癸未字(1403-1420)를 이용하여 인출 및 간행된 農書이다. 이제까지 동북아에서 알려진 『사시찬요』의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간행본이며 본문의 내용은 月令式 農家雜錄이 수록되어 있고, 그 주제는 ‘농업’, ‘농부산품 가공’, ‘의약 위생’, ‘기구수리 보관’, ‘상업 경영’ 등이다.

그리고 다루어진 내용들은 세종조에 간행된 『農事直說』과 함께 중국과 조선 초기의 농업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조선후기까지 관련 문헌 속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 책과 관련된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농업사 분야와 금속활자 癸未字에 대한 판본학적 연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농업사 분야에서는 1960년 일본에서 이책의 1590년 蔚山左兵營 간행의 목판본이 발견되어 영인 출판된 이래 중국과 일본에서 몇 편의 주석서¹⁾들이 간행되었다. 그밖에 여러 연구논문²⁾이나 저술³⁾에서도 『四時纂要』가 자주 언급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閔成基, 金榮鎭, 鄭在勳 등⁴⁾도 四時纂要抄나 식품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癸未字라는 금속활자에 대한 書誌學 차원의 연구는 그간 한국의 활자연구 분야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탕 연구로 印本과 구조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 千惠鳳, 趙炳舜의 연구⁵⁾와 2017년에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1,2』

- 1) 韓鄂 原編, 繆啓愉 校釋, 『四時纂要校釋』, (北京: 農業出版社, 1981).
韓鄂, 『(影印本) 四時纂要』, (東京: 山本書店, 1961).
渡部武, 『四時纂要 譯注稿 ; 中國古歲時記の研究その二』, (東京: 安田學園, 1982).
- 2) 天野元之助, “唐の韓鄂『四時纂要』について,” 東洋史研究, 第24卷 第2號(1965).
- 3) 石聲漢 著, 渡部武 譯, 『中國農書が語る2100年 ; 中國古代農書評介』, (東京: 思索社, 1984).
- 4)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8).
金榮鎭, “四時纂要抄와 四時纂要의 比較研究,” 農村經濟, 第8卷 第1號(1985. 3).
鄭在勳, “四時纂要의 復刊,” 石堂論叢, 第15輯(1989).
- 5)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 國寶指定 및 新發見 刊本을 포함한 綜合的 考察,” 『書誌學』, 第6號(1974).
千惠鳳, “癸未字本 《宋朝表牋總類》 解題,” 『奎章閣』, 第16輯(1994).
조병순, “癸未字 字數와 小字 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第11號(1993).

에 수록된 藤本行夫, 옥영정, 김성수, 이승철, 南權熙의 논문들에서 계미자의 字本, 形態, 組版技術, 印本들을 중심으로 그 영역이 확정되어 왔다. 특히 조병순의 『高麗本「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研究』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본과 같은 小字本인 까닭에 글자체나 조판 등에서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이 판본을 고려본과 조선본으로 구분하면서 계미자는 大字만 주조하였고 작은 자는 고려 書籍院字를 조판에 사용하였으며 부족한 자는 당시인 조선 초기에 小字를 별도 補鑄하여 補字로 사용하였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실제 小字에 해당되는 글자 중 작은 글자는 현재까지 그 찍은 인본이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마치 證道歌字와 함께 발견된 네다리형 활자의 인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같은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시찬요』의 印面을 중심으로 글자를 小字, 特小字, 極小字로 구분하여 그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내용상의 異同, 移動 등을 1590년 목판본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四時纂要』를 소개하고 분석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파악한 후에 나아가 판본간의 비교, 계미자 小字의 字形, 組版技術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계미자본 『四時纂要』의 물리적 형태와 구성 체제

『四時纂要』는 조선 초기 鑄字所에서 太宗의 명에 의하여, 조선시대 처음으로 鑄造된 癸未字(1403-1420)를 이용하여 인출 및 간행된 農書이다. 이는 이제까지 동북아 삼국에서 알려진 『四時纂要』의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간행본이며 본문의 내용은 月令式 農家雜錄이 수록되어 있다.

1. 물리적 형태

- 표지서명 : 표지 낙장, 없음
- 卷首題 : 四時纂要春令 卷下第二, 四時纂要夏令 卷第三, 四時纂要秋令 卷第四, 四時纂要冬令 卷第五
- 卷末題 : 四時纂要春令 卷上第一 終, 四時纂要春令 卷下第二 終, 四時纂要夏令 卷第三 終, 四時纂要秋令 卷第四 終
- 版心題 : 要
- 저자사항 : 韓鄂(唐)
- 판사항 : 金屬活字本(癸未字 小字)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2호)

- 간행사항 : [鑄字所 ; 1403-1420年]
- 형태사항 : 5卷 1冊. 26.8×15.9cm, 假綴
- 판 식 : 上下細黑口,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匡 19.7×12.3cm, 有界, 11行 19字, 註雙行
- 張 數 : 77張(권수, 권말 일부 낙장), 세로 발끈 폭 : 2.3-2.5cm
- 소장처 : 南嶽(金德一)宗宅

대상본인 계미자 소자본 『사시찬요』는 처음 알려지는 것으로, 그 형태적 특징을 보면 裝幀 형태는 표지가 떨어져나가 假綴된 상태이고 1책 77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권1의 권말 3장만 남아있고 권5의 권말 일부가 낙장되어 정확한 장수는 알 수 없다. 판면의 특징으로 行字數는 11행 19자에 註는 特小字 및 極小字가 雙行으로 되어있다.



『四時纂要』 卷5, 卷首題



『四時纂要』 卷1, 卷末題

<그림 1> 癸未字本 1卷末, 5卷首

2. 구성 체제와 수록내용

본 연구 대상인 계미자본과 이미 발견된 16세기 말 간행된 목판본, 17-18세기경의 필사본과 서로 판본과 본문의 기록내용을 대조하면 글자 및 문장의 도치, 항목간 이동과 추가, 삭제, 오류 등이 나타나므로 조선시대 간행 및 유통된 서로 다른 『사시찬요』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중국에서 유통되었던 판본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계미자본의 수정과 각 권별 분량은 앞뒤의 낙장, 훼손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존의 상태만을 바탕으로 하고 참고로 1590년 목판본의 체계를 같이 합성하면 다음과 같다.

- 목판본 ① [韓鄂] 序 [1장]
 계미자본 ② 四時纂要 春令 卷之一 [장] 正月 [3.5장+]
 계미자본 ③ 四時纂要 春令 卷之二 [19장] 二月 [10장], 三月 [8.5장]
 계미자본 ④ 四時纂要 夏令 卷之三 [20장] 四月 [5.5장], 五月 [8장], 六月 [6.5장]
 계미자본 ⑤ 四時纂要 秋令 卷之四 [19장] 七月 [8.5장], 八月 [7장], 九月 [3.5장]
 계미자본 ⑥ 四時纂要 冬令 卷之五 [12장], 十月 [6장], 十一月 [3.5장], 十二月 [6장+5+?]
 목판본 ⑦ [底本 記錄] 996년 施元吉의 雕字 記錄, 杭州 潘家彫의 간행기록과 音釋
 목판본 ⑧ 萬曆 5年(1577) 柳希潛 跋文
 목판본 ⑨ 萬曆 18年(1590) 朴宣 跋文과 慶尙左兵營 開刊 기록

위의 체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판본에서는 중국 底本의 간행기록과 조선에서의 전래와 간행과정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590년 목판본의 내용을 검토한 선행연구 등에서는 農事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을 月令式으로 수록하였고 전체 698條 중 占候, 擇吉, 禳鎮 등이 348條이며 나머지 350條는 매 달의 雜事이나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481條 정도라 하였다. 이를 특성별로 다시 6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하고 있다.⁶⁾

- 1) 農業 生産 技術 ; 245조
 食糧, 기름, 섬유작물 59조, 채소 70조, 染料 관계 5조, 蠶桑 9조, 과수 16조,
 竹木 30조, 차 3조, 목축 18조, 수의학 28조, 양어 5조, 양봉 2조
- 2) 副產品 가공과 제조 ; 91조
 麻 담기 2조, 섬유직조와 염색 15조, 양조 34조, 엿 제조 2조, 유제품 3조,
 유지가공 6조, 전분가공 6조, 동물야고 3조, 음식물 저장 20조
- 3) 醫藥 衛生 ; 70조
 약용식물 재배와 수집 31조, 약제 25조, 약물보관 2조, 潤膚와 장식 12조
- 4) 器物 修理와 保管 ; 37조
 공구생산 5조, 무기 3조, 기름옷과 칠기 7조, 모피옷, 서화, 먹 등 일용 雜器 14조,
 가옥수리 6조
- 5) 商業 經營과 高利貸金業 ; 33조
 농업부산물 판매 29조, 高利貸 4조
- 6) 教育文化
 문화학습 1조, 方術 1조, 武術 2조, 救恤 1조

6) 韓鄂 原編, 繆啓愉 校釋, 四時纂要校釋, 校釋前言, p.6.

이러한 내용에 의하여 볼 때 『四時纂要』는 『齊民要術』이 성립된 6세기 초부터 가장 빠른 일본의 간행시기인 10세기의 기간 중에 편찬, 유통된 것으로 당시의 농업기술과 사회경제 발전의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비록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최대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약 40%의 내용이 占候의이며 迷信的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당시의 시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唐과 五代에 이르는 당시까지 전래된 문헌을 반영하여 정리하고 작물로부터 가축과 가공, 보관에 이르러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Ⅲ. 찬자와 성립 및 유통

『四時纂要』의 찬자는 韓鄂으로 唐末 五代 시기의 인물이지만 그의 관향이나 생애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의 저술로는 『사시찬요』 외에 풍속 및 歲時⁷⁾와 관련하여 四時, 十二月, 節序로 나누어 사실을 수록한 『歲華紀麗』가 있다.

이 책의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기록이 한정되어 있어 정확한 성립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1590년에 경상좌병영 간행의 목판본의 底本에 수록된 跋文에 의하여 996년(宋, 至道 2)에 杭州 潘家에서 刻手 施元吉이 판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중국에서 1020년(天禧 4)에는 『齊民要術』·『山居要術』·『農桑輯要』·『汜勝書』 등을 바탕으로 『사시찬요』가 간행이 되었고, 紹興年間(1131-1162)에도 重刻하여 민간에 유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사시찬요』는 8세기말에 편찬되어 이후 중국의 여러 곳에서 간행·유포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新唐書』 권73上의 ‘宰相世系表’ 十三上에 의하면 당 玄宗때의 재상인 韓休(~ 739)의 형인 秘書郎 韓偓의 玄孫에 韓鄂의 이름이 나타난다.⁸⁾ 이를 근거로 上代는 北魏때 河東(山西省 永濟縣) 太守였던 韓純으로 그 후예에 해당되지만 『四時纂要』의 찬자와 같은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⁹⁾

한편 『사시찬요』의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기록은 한정되어 있어서 정확한 성립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玉海』의 수록내용 의하면 『四時纂要』는 『中興書目(崇文目 歲時類)』의 기록에서 한약이 여러 사람들의 농서에서 날씨에 따른 씨를 뿌리는 방법과 가축을 기르는 일 등을 뽑아 책으로 펴내고 간행하여 天禧年間に 각지에 배포하였고 그가 쓴 서문에서는 여러

7) 直齋書錄解題, 農家類, ‘四時纂要’에서는 비록 歲時에 관련된 책이지만 모두 農事に 관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8) 韓鄂 原編, 繆啓愉 校釋, 四時纂要校釋, p.1.에서는 韓休의 동생 ‘韓倩’의 玄孫이라 인용

9) 韓鄂 著, 守屋美都雄 解題, (影印本)四時纂要 (東京: 山本書店, 1961), 解題 pp.1-2.

韓鄂 原編, 繆啓愉 校釋, 四時纂要校釋, p.1-2.

新唐書(乾隆 4年 校刊本) 卷73上, ‘宰相世系表’ 十三上의 表; 韓偓-滔-暈--(口, 鄂, 都, 邢, 郟)

책을 읽고 땅과 산물을 月令과 관련하여 채록하였음을 밝히면서 이 때 언급된 참고자료는 汜勝의 種藝之書 2卷¹⁰⁾, 崔寔의 試穀之法(四民月令 1卷), 韋氏月錄(韋行規 / 保生月錄 1卷), 齊民要術(賈思勰 / 要術 10卷) 등이다¹¹⁾라고 하였다.

기록상으로 볼 때 『사시찬요』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宋史』 卷263의 ‘寶儼傳’으로 五代後周의 世宗(954-958)때 翰林學士 判太常寺였던 寶儼이 권농정책의 疏를 올리면서 『齊民要術』, 『韋氏月錄』과 더불어 『四時纂要』 중에서 田蠶園圃에 관한 기록을 모아 한 권으로 간행하자는 언급하였고 이어 三司에서 목판으로 새겨 널리 여러 지방에 배포하여 민간에서까지 퍼지도록 건의하였다¹²⁾고 한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에서 要術을 抄本으로 베껴서 전해지다가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인 摹印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李昉에 의하여 『四時纂要』와 『齊民要術』을 같이 간행하게 되었다.¹³⁾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四時纂要』의 간행 기록으로는 北宋 眞宗 天禧 4年(1020) 8月 22日에¹⁴⁾ 利州路轉運使이던 李昉¹⁵⁾이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백성들이 播種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느껴 『四時纂要』와 『齊民要術』을 판각 출판하여 여러 지역의 勸農司에 나누어 줄 것을 청하여 명에 의하여 史館, 集賢殿, 昭文館, 崇文院, 秘閣 등의 關係자들이 참여하고 校勘하여 간행하였다.¹⁶⁾

이후 宋代의 기록¹⁷⁾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四時纂要』에서 인용하였던 여러 문헌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 周守忠의 『養生月覽』에서는 77항목을, 『雲及七籤』에서는 81항목 등 비교적 많은 인용을 하였다고 밝혔다. 즉 남송시대의 학자들 간에는 『四時纂要』가 養生延命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宋史』 「藝文志」 卷158, 『宋史新編』 卷50, ‘志’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어 南宋 紹興年間(1131-1162) 張運이 桂陽監(湖南 桂陽縣)일 때 『顏氏家訓』과 『四時纂要』 등을 판각하여 민간에 유포하였다.¹⁸⁾

元代에서의 기록은 史料에서는 찾기 어렵고 明代에 이르러 葉盛의 『菴竹堂書目』 卷5, ‘農圃’와 陳第의 『世善堂藏書目錄, 下』의 ‘各家六’과 『文淵閣書目』 卷15, ‘農圃’, 戴羲의 『養余月令』에서 인용, 『廣群芳譜』, 『通雅』 등에서도 언급되었다. 이미 선행연구에 의하여 『農桑輯要』

10) 일반적으로 ‘汜勝之書 2卷’으로 기록된 문헌도 있음.

11) 玉海, 卷12 律歷 ‘唐四時纂要’

12) 宋史, 卷263, 列傳 第22 寶儼(弟 儼); 冊府元龜, 卷553, 詞臣部 ‘寶儼’

13) 文獻通考, 卷218, 經籍考 45 ‘齊民要術 十卷’, ‘四時纂要 五卷’조의 해설.

14) 宋會要輯稿, 職官42 등 다수 기록.

玉海, 卷178 食貨 ‘賈思勰 齊民要術’조와 『月日紀古』, 卷8에는 8월 26일에 頒行한 것으로 기록.

15) 續資治通鑑長編, 卷95에는 ‘李昉’으로 달리 표기됨.

16) 宋會要 食貨 ‘農田雜錄’; 宋會要 職官 ‘勸農使’; 續資治通鑑長編 卷95; 玉海 卷178 食貨 ‘農書’; 玉海, 卷178 食貨 ‘賈思勰 齊民要術’

17) 洪适, 盤州文集 卷3; 陳造, 江湖長翁文集 卷31; 羅願, 爾雅翼 卷8; 周守忠, 養生月覽

18) 宋史, 卷404, 列傳 第163, ‘張運’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2호)

의 내용 중에서도 『四時纂要』의 일부 내용이 인용된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明, 清代에는 일부 문헌에서 내용 중의 짧은 문장만 나타날 뿐 서명을 書目 등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고 다만 역대의 서목을 인용한 예만 보인다.

한편 이러한 『四時纂要』의 기록이 중국의 역대 書目에는 5권, 10권, 1권 등으로 서로 달라서 이를 살펴보면 唐-宋의 초기까지는 5권으로 이후는 10권으로, 清代에는 1권으로 나타난다. 물론 현존하는 3종의 실물이 모두 5권으로 편찬되어 있지만 이미 唐代로부터 편찬·간행되거나 필사의 형태로 轉寫되어 유통된 판본이 많았던 만큼 전체 분량과 체제에 대한 기술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한 양상에 대하여 같은 韓鄂의 저술인 『歲華紀麗』이 목록상에 표기된 기록과를 비교해 보아도 서지별로 달리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대상 문헌이 版本인지 寫本인지의 구분이 없는 것도 있어서 『歲華紀麗』의 7권본인 경우는 鈔本으로 기술되어 刊本の 권수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표 1〉 『四時纂要』와 『歲華紀麗』의 목록 기록

출전 목록	四時纂要	歲華紀麗
新唐書 卷59 藝文志 第49	四時纂要 5卷	歲華紀麗 2卷
唐書 藝文志注 卷3	상동	상동
唐書合鈔	상동	상동
續通志 卷164	상동	상동
崇文總目輯釋 卷2	상동	상동
玉海 卷12 律歷	상동	
通志 卷64 藝文略 第2 ‘時令’	상동	歲華紀麗 2卷
文獻通考 卷218 經籍考 45	상동	
補五代史藝文志 雜家類	四時纂要 10卷	
宋史 卷205 藝文志 第158	상동	歲華紀麗 4卷
宋史新編 卷50 志36	상동	상동
百宋樓藏書志 卷29		상동
晁氏讀書志	四時纂要 10卷	상동
直齋書錄解題 卷10	四時纂要 5卷	歲華紀麗 7卷(卷6)
千一閣書目 卷2 史部		歲華紀麗 7卷 鈔本(烏絲欄)
傳是樓書目		歲華紀麗 4卷
八千卷書目 卷13 子部		상동
清史稿 卷128 藝文 2	唐韓鄂四時纂要 1卷(馬國翰 輯)	
清續文獻通考 卷270 經籍考 14	四時纂要 1卷	
文淵閣書目 卷4	四時纂要 1部 1册	

이러한 서목에 수록된 기록과 더불어 개인의 문집이나 기타 저술에서 언급한 경우도 있어서, 南宋 초기의 인물인 洪适의 『盤州文集』 권3에 『四時纂要』를 謝偁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시가 수록된 것과 南宋 중기 인물인 陳造의 『江南長翁文集』 권3에서 ‘題四時纂要’라는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밖에 앞의 기록들과 같은 시기인 南宋때의 羅願도 『爾雅翼』 권8과 周守忠의 『養生月覽』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하였다.¹⁹⁾

IV. 『四時纂要』의 1590년 간행본과 조선시대 사료 기록

1. 1590年 慶尙左兵營 刊行本

이 1590年 慶尙左兵營 刊行本 1960년 일본의 山本敬太郎의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守屋美都雄이 검토하여 해제를 붙여 영인본²⁰⁾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線裝本 형태의 목판본으로 크기는 25.7×22cm이며 진한 갈색 표지에 목서로 ‘四時纂要 [] []’ 쓰여 있다. 전체의 분량은 90張이고, 판식은 四周單邊에 匡廓은 23.6×17cm, 판면에는 界線이 있고 11行 22字를 배열하였다.

책의 권말에 의하면 저본은 중국 宋의 太宗 至道 2年(995) 9월에 施元吉이 글자를 새겨 杭州의 潘家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을 새겨 장차 세상에 유포시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의 勸農에 도움을 주며 모든 사람들이 부와 수명을 누리게 할 목적임을 밝혀두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행함으로써 자손들이 굶주림과 추위로부터 벗어나고 요절하는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저본을 柳希潛이 오래전에 구하였으나 간행하지 못하였고 또 책 내용 중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要語만을 찬술하여 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부분은 뒤에서 후술한 책의 항목 편차나 記述에 있어서 다른 판본과 달라지는 원인을 밝혀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 책을 朔州의 繕工監 判官으로 부임한 朴宣에게 주었고 그가 출판을 기획, 간행코자 할 때 써준 발문이 1577년이였다. 그러나 박선이 지방으로 다니면서 출판이 여의치 않았고 게다가 유희잠 마저 세상을 뜨게 되었다. 나라가 평안한 시절을 맞아 박선이 재물을 내고 기술자를 모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판에 새겨 출판하였다.

또 이 판본의 서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공백이 있어 제1장 앞면 11행의 ‘何以[生][是]’, 뒷면 7행 ‘諱[貧][則]可嗤’와 8행 ‘[知] 五穀之貴賤’에서 그 비워둔 글자는 필사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판각할 때에 비워둔 공백은 유희잠이 수정을 하고 박선에 전달하여 보관되어 판각되기 까지 10여년의 과정에서 누락이나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韓鄂 著, 守屋美都雄 解題, (影印本)四時纂要 (東京: 山本書店, 1961), 解題 pp.5-6.

20) 韓鄂, (影印本) 四時纂要 (東京: 山本書店, 1961), 影印 [2]176p, 解題 86p.

2. 史料記錄

가. 世宗實錄의 기록

世宗 5년(1423) 6월 1일 庚戌에 戶曹로 하여금 각 도에 문서를 보내 메밀(蕎麥)을 경작하게 하고 『農桑輯要』, 『四時纂要』 등 본국의 經驗方을 참고하여 때에 맞도록 하라는 傳旨를 내렸다.

이어 동왕 19년(1437) 6월 13일 辛未때도 각 도의 監司에게 傳旨를 내려 우리나라 농민들이 예로부터 가을갈이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수확이 적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四時纂要』의 ‘肥田法’ 등 중국의 농서에 수록된 방법을 민간에 알리도록 하였다.

또 세종은 다음 달인 19년(1437) 7월 23일 辛亥에도 각 도 監司에게 傳旨하기를 勸農이 정치의 근본으로 『農事直說』을 간행하여 반포하였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장려하는 데 힘쓰라는 지시를 내렸다. 동시에 여러 농서 중에서 『農桑輯要』와 『四時纂要』 외에도 汜勝의 『五穀種子辟疔妨法』의 내용 중 법씨에 벌레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장려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에서 『四時纂要』가 인용되었다.

나. 『山林經濟』

洪萬選이 편찬한 이 책의 권1에는 ‘攝生’과 ‘治農’條에서 『四時纂要』를 인용하고 있는 바 攝生에서 금옥과 귀한 자손을 얻는 날에 대한 2항목을 인용하였고 治農에서는 27항목을 인용하여 절기와 날씨, 작물의 생산 관계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다. 『農家集成』의 기초자료로서의 『四時纂要』

正祖 23년(1799) 2월 11일 己亥²¹⁾에 공주 판관 金箕應의 牒呈에서 언급한 柳鎭穆과 林博儒의 농서를 바쳤을 때 『農家集成』을 참고하여 농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를 올렸다. 이때의 『농가집성』은 孝宗때 申澗이 편찬한 책으로 세종 때 鄭招와 卞孝文이 편찬한 『農事直說』에 成宗때 姜希孟이 衿陽(지금의 始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경험으로 지은 『衿陽雜錄』의 내용을 보태고, 중국 당나라 때 韓鄂이 지은 『四時纂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조선의 농업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펴낸 『四時纂要抄』를 보태었다. 이러한 세 농서를 바탕으로 여기에 세종의 勸農文과 朱熹의 勸農文 등을 보태고, 申澗 자신이 지은 『救荒撮要』까지 포함하여 편찬한 『농가집성』은 孝宗 6년(1655) 왕명으로 처음 간행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과 증보가 이루어졌다.

21) 日省錄, 正祖 23년(1799) 2월 11일 己亥

라. 『五洲衍文長箋散稿』,22) 天地篇과 萬物篇

내용중 天文類, 曆象의 ‘曆二十四氣辨證說’에서 계절의 변화와 날씨 등 천기에 따른 농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月令纂要』와 함께 『四時纂要』 등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혔으며 草木類, 果種의 ‘葡萄辨證說’에서도 『居家必用』과 더불어 포도나무의 접붙이기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마. 文集類

사료에 나타난 『四時纂要』의 기록 외에도 朴趾源의 『燕巖集』 권16, 別集 ‘課農小抄’에서도 齊民要術, 種蒔直說, 農事直說, 山林經濟增補 등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四時纂要』는 밭 갈기의 깊이와 害蟲, 病과의 관계를 언급하는데 인용하였다. 또 같은 책의 권17에서도 앞서의 여러 문헌의 인용과 더불어 『四時纂要』에서의 햇볕과 地熱을 조절하여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도 수록하였다. 또 洪柱世는 『靜虛堂集』의 ‘農家集成後敘’에서 『農事直說』이 公山에서 간행된 후 『衿陽雜錄』과 『四時纂要』를 첨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V. 계미자본 『四時纂要』의 특징과 본문 對校

이 계미자본은 계미자를 주조하여 사용했던 기간인 太宗朝 1403-1420년 사이에 찍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제까지 알려진 『사시찬요』의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볼 수 있다.

이 판본을 16세기 말 간행된 목판본과 17세기경의 필사본과 판본 대조를 하면 글자 및 문장의 도치, 항목간 이동과 추가, 삭제, 오류 등이 나타나 조선시대에 간행되거나 및 유통된 『사시찬요』의 계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書誌學의 영역에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形態書誌學的 분석

이 책은 계미자의 대소 활자 중 小字를 이용하여 본문을 인출하였고 본문의 註는 特小字와 極小字를 사용한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그중 極小字는 다른 계미자 판본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다. 또 組版의 형태는 글자의 植字, 배열 중 활자가 거꾸로 植字되거나 크기가 다른 활자를 같이 섞어 조판한 것이며 版式은 계미자 소자본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大策』과 같고 활자 가운데 송 태조의 성명인 ‘趙匡胤’중 ‘匡’자의 마지막 1획이 결획된 ‘𠄎’字²³⁾ 등은 『新

2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天文類, 曆象 ‘曆二十四氣辨證說’; 萬物篇 草木類, 果種 ‘葡萄辨證說’



계미자본 日出沒圖(목판)



1590년 목판본 日出沒圖

<그림 2> 판본별 日出沒圖 비교

刊類編歷學三場文選大策』, 『十七史纂古今通要』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초기 활자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行列이 맞지 않고 글자가 기울어진 것이 많으며 印出의 색이 글자별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版式에 있어서도 이 책은 이미 발견된 小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과 동일한 판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계미자본의 본문 중 아래 위의 여백에는 墨書의 기록이 많아서 대체로 해당 면의 달 표시나 항목의 제목 부출, 부분적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사항 표시 등으로 본문 내용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가. 목판의 ‘日出沒圖’

1월의 마지막 16장 뒷면의 ‘日出沒圖’는 목판에 판각된 것으로 그 수록 내용은 1590년본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부분이 나타난다. 비록 계미자본의 도판은 우측의 일부가 훼손되어 배접한 후 목서의 기입으로 보충하고 있어서 원래의 모습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목판으로 찍었던 남은 부분은 대조가 가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이 글자는 國立中央圖書館 소장의 『十七史纂古今通要』 권17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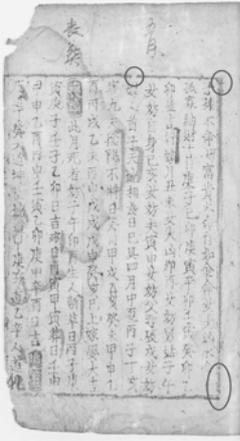
- ① 계미자본 우측 (예) 十二月十月日 [入此] → 1590년본 十二月十月日沒此
 매월 같은 부분에서 ‘入’ 과 ‘沒’ 이 교체되었지만 계미자본은 후대의 補充된 墨書라 비교하기 힘들지만 圖의 제목으로 보면 ‘沒’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② 계미자본 좌측 (예) 十二月十月日出此 → 같음
 계미자본 / 12월, 正月, 2월, 3월, 4월 ... →
 1590년본 / 12월, 2월, 正月, 3월, 4월 ... [오류로 판단됨]
- ③ 계미자본 좌상 (예) / 巽十一月日出於此之 冬至後 →
 1590년본 / 巽十一月日出於此之 後冬至 [기입 공간 부족, 오류로 판단됨]

나. 匡廓과 界線

(1) 鐵弓里的 형태

계미자본의 판식은 小字本일 때 동일한 植字板을 사용하여 조판 하였다.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고려 금속활자본인 『直指』와 『慈悲道場懺法集解』는 2판을 번갈아가며 반복 사용하였고 조선에 들어서도 사시찬요를 찍었던 같은 활자인 계미자 소자본으로 찍은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大策』의 경우에는 4판을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이 유형의 구분은 印面に 나타난 鐵弓리나 銅印札의 특정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 『文選大策』의 경우 간혹 판의 상하를 돌려서 사용한 점도 확인되었지만 『四時纂要』에서는 돌려 쓴 판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된 4판의 형식과 각권별 해당 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四時纂要에 사용된 철우리의 종류

I 형		II 형	
5행 끊어짐 1행의 상하단 변란 이지러짐		7번째 계선 중간 돌출부분 1~4계선이 중간부분 휘어짐	
			
권3/5월 8,10,13,16장	권4/9월 17,19장	권3/4월 4장	권4/8월 10,12,14장
권4/7월 2,4,6장	권5/10월 2,4,6, 8,10,12,14,16,18장	권3/5월 7,11장	권4/9월 16장
권4/8월 11,13,15장		권4/7월 1,3,5,7장	권5/10월 1,3,5,7,9,11장

<표 2-2> 四時纂要에 사용된 철우리의 종류

III형		IV형	
1,2,3행 상단 계선 끊김 1행 상하단 변란 이지러짐		뒷면 상하단 변란이 이지러짐	
			
권2/2월 5,7,9장	권2/3월 11,13,15,17,19장	권3/5월 6,12,14장	권3/6월 20장

계선의 경우 테두리의 변란과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부의 계선은 주조와 연마의 과정에서 굴곡지거나 휘는 현상이 생기거나 불규칙적으로 단절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전체적인 印面으로 볼 때 상하의 鐵弓里중 활자와 닿는 부분이 둥근 곡선으로 인쇄된 부분(예; 3월 (15뒤/10행))이 많은 데 이 현상은 조판시 본문의 활자가 테두리보다 높아서 印出할 때 종이가 완전하게 밀착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直指』의 인출면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2) 版口와 魚尾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匡廓과 鐵弓里가 같다면 아래위의 版口와 魚尾의 형태도 같을 것으로 판구는 아래 위 모두 細黑口로 펼치면 잘 보이지 않는다. 版口의 길이 역시 『文選大策』과 같지만 4가지 판식의 사용 순서가 규칙적이지 않아 처음에는 높고 낮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다가 제3권의 중반부터 한 종류가 사용되었다. 이후 다시 판이 혼용되다가 제4권부터는 같은 형식의 판들이 사용되었다.

〈표 3〉 癸未字本 四時纂要 권별 上下版口 크기 비교 (mm)

권 앞면	卷1		卷2		卷3		卷4		卷5	
	上版口	下版口	上版口	下版口	上版口	下版口	上版口	下版口	上版口	下版口
1	※	※	49.7	※	39.5	※	49.2	39.8	48.7	38.6
2	※	※	39.0	※	49.5	※	49.1	38.9	48.0	※
3	※	※	49.3	39.6	39.5	※	48.8	※	48.6	※
4	※	※	38.6	48.7	49.5	※	48.7	39.6	48.2	※
5	※	※	49.8	※	49.0	※	48.5	39.3	49.5	※
6	※	※	38.8	※	49.5	※	49.2	39.3	48.8	※
7	※	※	49.1	※	49.3	41.4	49.2	38.9	49.3	※
8	※	※	38.8	48.7	49.3	※	※	※	48.3	※
9	※	※	49.1	※	49.5	40.8	49.1	38.8	48.5	※
10	※	※	39.1	※	49.1	※	48.6	39.0	48.5	※
11	※	※	48.9	※	49.0	※	48.2	39.9	48.5	※
12	※	※	39.8	49.1	49.0	※	48.2	39.6	※	※
13	37.9	※	49.1	※	49.0	※	49.2	39.4	이하 측정 불가	
14	48.1	※	39.8	※	39.6	49.5	49.1	39.7		
15	38.2	※	49.4	※	49.5	39.5	48.3	※		
16	46.1	※	39.3	※	49.1	※	48.0	※		
17			49.4	※	39.2	49.4	※	※		
18			39.5	※	49.0	※	48.9	39.4		
19			48.6	※	39.4	49.4	48.3	※		
20			※	※	49.0	※				

* 판본의 훼손으로 측정불가 부분이다.

(3) 글자의 크기와 배열

① 크기와 字樣



대자 소자 소자(고려) 특소자 극소자

〈그림 3〉 계미자본의 글자 크기 비교

㉠ 大字

癸未字의 대자는 판식에서 8행 17자의 배열이지만 『四時纂要』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 小字

이 소자는 이미 알려진 『陶隱先生集』,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大策』, 『地理全書』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四時纂要』도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그밖에 『纂圖互註周禮』나 『十七史纂古今通要』, 『宋朝表牋總類』 등의 주석에서도 같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大策』 등을 통하여 小字에도 2종류가 있음이 밝혀졌고 그 중 약간 작으면서도 필서체의 느낌을 띠고 있는 글자에 대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의

書籍院活字라는 주장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 활자의 주조 시기가 계미자보다 빨랐던 고려 시대로 추정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사용의 과정과 순서에 있어서는 달리 접근하고자 한다.

즉 글자의 크기와 서체에 대하여 필서체가 가미된 2종의 소자 중 상대적으로 작은 활자로 서 인출에 있어서 약간 진하게 보이는 활자에 대하여 조병순²⁴⁾은 서적원활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계미자와 함께 조판할 경우 조판에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이후 가늘지만 상대적으로 큰 서체의 활자를 만들어 補字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癸未字를 처음 주조할 때는 大字만을 만들었고 조판, 인쇄할 때 필요한 小字는 당시까지 전존하던 서적원활자를 함께 사용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小字의 書籍院活字보다 癸未字의 조판에 알맞은 작은 자를 새로 만들어 補字로 사용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계미자를 처음 주성할 때 대자와 소자가 함께 만들어져 사용하였으나 小字가 많이 필요하게 되자 전래해 오던 고려활자를 補字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되는 것으로 조병순은 2종의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大策』에서 글자와 擡頭法, 空格 등에 의거하여 고려와 조선본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와 멀지 않은 시기에 庚子字로 찍은 『資治通鑑』의 경우에도 필요한 수요에 의하여 새로 찍어낼 때 글자와 문장의 수정을 거쳐 같은 활자로 서로 다른 체제의 책을 찍어낸 경우도 있으므로 같은 책을 두 번 찍었다는 사실과 체제가 다른 부분으로만 추론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糴, 糶’의 경우 ‘糶, 糶’의 글자만 사용되었고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大策』을 대상으로 검토한 조병순의 연구에서는 고려본에서는 ‘糶, 糶’자가 혼용되었고 조선본에서는 ‘糶’자로 단일화되었다²⁵⁾고 하였으나 『四時纂要』에서는 完全字는 찾을 수 없다. 즉 이러한 현상은 이 글자만으로 고려와 조선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8월(4/10 앞/3행)의 ‘凶’의 경우에도 조선본에서는 ‘凶’자만 補字로 사용되었다²⁶⁾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앞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㉞ 特小字

註에서 사용된 활자로 크기의 차이가 많은 極小字와 혼용되었다. 당시 小字의 본문보다 작은 글자의 註로 쓸 수 있는 활자의 수량이 작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유형의 글자들은 본문의 서체와 다르고 간혹 그 찍은 字跡이 진하고 선명한 것이 혼용되어 있어 일부 목활자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크기와 서체의 현상은 계미자 인본 중 地理全書에서도 볼 수 있다.

이 特小字는 본문의 註나 특정 글자의 聲調表示를 표시하거나 音釋을 표시하였다. 그밖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거나 중복 내용임을 지시하는 설명하는 경우에도 사용하였다.

예) 3월(2/19앞/9행) 冰 [去聲]

4월(3/1앞/8행) ㄱ/居 [音居 貯也], 5월(3/10뒤/5행) 曠 [音漢]

24) 조병순, 高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大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p.115.

25) 上揭書, pp.42-43.

26) 上揭書, p.47.

㊤ 極小字

앞의 特小字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특소자를 보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활자들은 서체나 字跡으로 판단할 때 일부 목활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활자들이 보충된 기능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芥米자가 구조될 당시보다 그 이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활자 중에서 해당 내용의 글자를 골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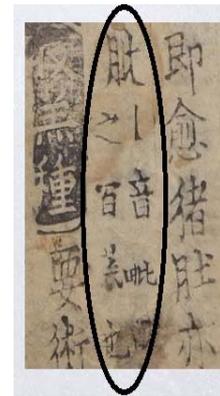
또 글자의 불규칙한 크기와 형태, 印面의 진한 먹색 등으로 볼 때 이 활자들은 다분히 木活字 補字로 추정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 | | |
|-----------------------|-------------------------|-------------------------------|
| 神, 逆, 害 ; 4월(3/4앞/5행) | 能, 盛, 夏 ; 6월(3/19앞/2행) | 施, 蒲 ; 9월(4/19앞/3행) |
| 守, 以 ; 4월(3/5앞/7행) | 至, 蛙 ... ; 6월(3/20앞/4행) | 一, 升...別, 爛, 搗 ; 10월(5/4앞/8행) |
| 緣, 砒 ; 5월(3/9뒤/7행) | 魚 ; 8월(4/15뒤/6행) | 甘, 宿, 牛, 乳 ; 10월(5/4앞/10행) |
| 毛, 水, 灸 ; 5월(3/9뒤/9행) | 餘, 雷, 占 ; 9월(4/16앞/7행) | 衣, 罨 ; 11월(5/13앞/7행) 등 |

이 『사시찬요』의 판면에 나타난 활자를 크기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芥米자본 글자별 크기

大	小	小(고려)	特小	極小
 2-2a-5-17	 2-3b-6-18	 2-8b-10-17	 2-2a-8-19	 2-18a-9-12
 4-16a-2-6	 2-7b-4-4	 2-17a-8-15	 2-11a-10-9	 2-11a-10-15
 4-8b-5-1	 2-1a-7-4	 3-3b-5-14	 2-2b-6-9	 2-2b-6-9
1.3cm	1.0cm	0.8cm	0.6cm	0.4cm



<그림 4> 符號

㊤ 符號

이 책의 본문 중에 사용된 부호는 卮를 달 때 앞의 글자를 중복할 경우 ‘|’(그림 4)와 같은 부호로 대신하고 있다. 第1卷의 14장앞 7행 ‘牛中熱方’의 항목에서 ‘取免腹卮 | 音毗 獸之百藥也’와 같이 사용되었다. 목판본에서는 ‘卮’자는 ‘臄’로 사용되었고 ‘|’의 부호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는 고려시대의 활자본인 『慈悲道場懺法集解』나 목판본 『古今韻會舉要』와 같은 韻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墨蓋子

본문의 항목을 전개할 때 항목의 제목으로 사용된 음각판으로 아래위의 등근 가장자리에 單線을 넣은 것과 線이 없는 것, 사각형 등이 특별한 구분없이 사용되었다. 음각으로 조각된 글자는 같은 항목이라도 서체와 크기가 달라지고 간혹 글자의 추가나 삭제된 경우가 있다.

그 중 3월(2/16뒤/1행)의 ‘是月收合龍駒’의 경우 위쪽 변란과 맞닿아 있고 자체가 변란보다 높게 조각 내지 조판되었기 때문에 변란이 낮아 제대로 인쇄되지 않았다.

권제1의 마지막 항목인 ‘是月也’는 비록 목판의 墨蓋子이지만 다른 항목과의 용어와 단계가 맞지 않는다. 동일한 현상이 같은 제1권의 ‘案太史曰(1/13앞/4행)’에서도 볼 수 있으나 후대의 판본에서는 墨蓋子の 형식을 제거하고 본문의 연결로 처리하였다.

<표 5> 각 월별 墨蓋子の 유형 예시

	天道	晦朔占	諸凶日	喪葬	起土	行秋令	行夏令	行冬令
I								
해당월	3, 4, 5, 7, 10	2, 3, 5, 6, 7	4, 6, 12	2, 3, 5, 9, 10	3, 5, 6, 8, 9, 11	2, 5, 6	8, 9, 10, 11	2, 3, 9
II								
해당월	2, 6, 8, 9, 11	8, 9, 10, 12	그 외의 달	4, 12	2, 7, 12	3, 4, 11, 12		4, 7, 8
III								
해당월		4		6, 7, 8, 11	4			

㉡ 활자의 混用 組版

앞서 예시한 2종의 小字, 特小字, 極小字들이 본문이나 주에서 혼합 조판되어 있어서 초기 활자의 부족이나 조판의 미숙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 2종의 소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활자를 補字로 사용하였고 특소자와 극소자는 注에서 혼용되었지만 간혹 小字까지 같이 혼합되어 글자의 크기가 판이하게 달라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 예로는 6월(3/19앞/11행)중의 “...淨[淘] 擇去惡者”에서 [淘]자는 본문 글자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하고 역시 6월(3/17앞/3행)의 ‘濯黃衣’ 항목에도 출현하지만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같은 면 제2행의 주석에서도 여러 極小字가 쓰이는 가운데 2종의 特小字 ‘食’字가 혼입되어 조판이 고르지 않다.

또 다른 예로 3월(2/14앞/10행)의 注 ‘及近~~長~~長而 [直]’에서의 소자 크기의 ‘直’자, 같은 면 7행의 注에서 극소자와 함께 조판된 ‘用’자, 같은 면 8행의 注에서 ‘音, 積’자, 같은 면 11행의 注에서의 ‘則’ 등도 특소자의 크기에 해당하지만 극소자와 함께 조판되었다.

㉞ 墨等

3월의 ‘蘭香荳蓼’ 항목에서 1590년본에서는 ‘蘭香荳■蓼’와 같이 墨等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 대체로 관각할 때 墨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각수가 글자의 관독이 어려워 비워두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항목의 사례는 짐작하기 어렵다.

㉟ 글자의 배열

㉟ 倒置

본문의 글자들이 字나 單語, 語句 단위로 앞뒤가 서로 바뀐 것이 많다.

㊱ 省略

각 달의 ‘推六道’ 항목 즉 占候 부분에서 문장이 도치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많다.

㊲ 代替字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誤字가 아닌 판본에 따라 글자가 달라진 것으로 의미가 유사하거나 기능적으로 대치된 글자에 해당한다.

예) 4월(3/6앞/3행) ‘君子 [弗] 取也’에서 ‘弗’이 목판본에서는 ‘不可’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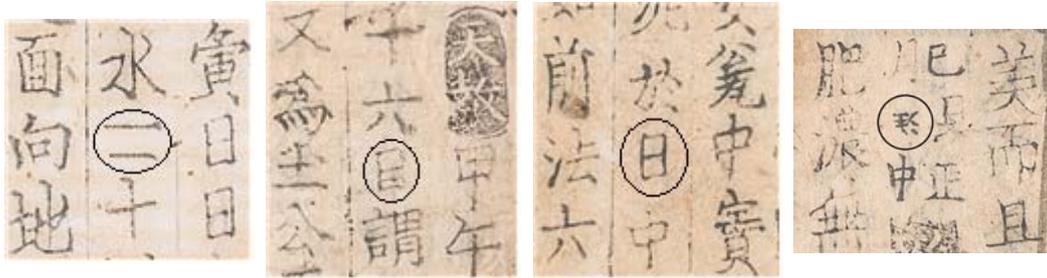
그 중 내용이 바뀌어 ‘人’자와 ‘男’가 판본에 따라 서로 고쳐졌다. 癸未字本에서의 ‘此月生 [人]不可娶’ 5월(3/7뒤/10행), 7월(4/2뒤/8행), 8월(4/10뒤/6행) 등의 ‘人’이 1590년 목판본에서는 ‘男’으로 바뀌어졌다.

㊳ 上下轉倒字

이 활자들은 조판할 당시에 아래위를 잘못 구분하여 植字한 것으로 ‘日’字(6월(3/18뒤/1행), (3/19앞/8행))나 ‘目’字 등의 예를 볼 수 있다. 또 글자의 모양에 의한 誤植이 아니라 완전히 실수나 校訂이 되지 않은 경우로 ‘注’字(5월(3/10뒤/3행))는 特小字의 주 ‘已具正月 [注] 中’에서 아래위가 뒤집어져 있다. 이는 조선 초기 활자인쇄술의 수준 내지는 당시 철저한 校訂을 하지 못할 실제상의 급한 요구상황 등에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 6월(3/18뒤/1행, 19앞/8행)의 ‘日’자도 같은 현상이다.

6월(3/17뒤/8행)의 ‘破地汲水 [二]十斛’의 ‘二’자가 아래위가 뒤집혀 위의 획이 더 길다. 또 ‘目’字(5월(3/7뒤/2행))의 경우는 ‘日’字의 誤字면서 아래위가 뒤집혀 조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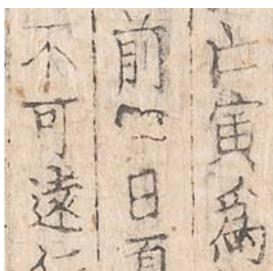
‘二’자의 상하반전 ‘日’자의 誤字, 상하반전 ‘日’자의 상하반전 ‘注’자의 상하반전

<그림 5> 上下轉倒字의 예시

㊤ 前後轉倒字

이 활자는 활자 실물의 글자면과 뒷면 즉 바닥면이 植字할 때 잘못 꽂아져 글자가 아닌 활자 실물의 뒷모습이 찍힌 것이다. 특히 글자가 작거나 글자와 활자의 형상이 유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이다.

5월(3/7뒤/3행) ‘出行日’ 항목인 “...夏至前 [一]日 夏至後十日...”에서 [一]의 위치에 글자가 아닌 활자 가장자리 테두리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인쇄되었다. 비록 조판의 실수이지만 이를 통하여 이 활자들의 뒷모양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印面으로 보면 활자의 모양이 사각의 방향이 아닌 매우 불규칙적인 모습이며 가장자리에만 먹이 찍힌 것은 가운데 부분이 흠처럼 파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찍힌 가장자리는 고르게 나타나지 않아서 위는 진하고 넓게, 아래는 가늘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로 인하여 뒤의 흠 내지 공간도 정형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모습은 글자의 상하가 거꾸로 식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자의 앞에 식자된 ‘前’자의 경우에는 ‘日’자의 오른쪽 획이 夫字를 만들 때 바닥면과 획이 거의 같은 높이였던 까닭에 구분되어 인출되지 않는 현상 등으로 글자 구조와 조판의 기술 수준이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간속의 ‘一’자 印面



‘一’자 後面 확대

행간:	12.35mm
활자 가로크기:	7.04mm
활자 세로크기:	4.52mm

<그림 6> 前後轉倒字



證道歌字 ‘一’자의 前面 證道歌字 ‘一’자의 後面

<그림 7> 證道歌字 實物

이미 고려시대의 證道歌字를 통하여 활자의 뒷면이 홈형으로 되었음이 밝혀져 있지만 조선 초기의 芥子園도 역시 같은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소자의 크기는 글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3월(2/14뒤/9행, 15앞/5행)의 ‘籠’의 경우 글자의 왼쪽, 상단 등에 활자의 크기로 추정되는 가장자리 선이 글자의 획과 닿은 채 인출되어 있다.

㊸ 本文과 注

본문 중에는 注를 활자의 크기로 구분하지 않고 본문의 小字 크기로 주를 식자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본문을 注의 활자로 조판된 경우도 간혹 보인다. 즉 4월의 ‘黍稻胡麻’ 항목에서 마지막 부분의 ‘術具二月’이란 기록은 책 전체의 다른 문장으로 볼 때 小字의 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판본의 체제 차이로 판단되는 것도 있어서 그중 4월의 내용에서 여러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注의 特小字에서 ‘注’와 ‘法’字가 혼용된 부분이 보이는 바 문장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農法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 서로 통용해도 큰 차이가 없지만 글자의 모양으로 볼 때 底本과 전래본의 차이거나 혹은 組版者의 실수로 볼 수도 있다.

㊹ 동일 글자로서 父字가 다른 활자의 예시 (‘善’)

이 유형은 구조된 금속활자의 경우 字本에 따라 父字를 달리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증도가』, 『직지』 등에서도 확인된다.



8월(4/9뒤/10행)

8월(4/9뒤/2행)

8월(4/9뒤/2행)

8월(4/9뒤/8행)

<그림 8> 4권에서 나타난 다른 유형 ‘善’자

③ 活字 形態와 組版上의 特征

㉠ 印出面에서 글자의 橫列이 맞지 않는다.

㉡ 行에서 개별 글자의 좌우로 기울어짐이 많다. 예) 5월(3/9뒤/2행)의 ‘二兩’ 등

㉢ 植字가 잘못되어 글자의 방향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예) 5월(3/10뒤/3행)의 주 ‘注’자의 아래위가 바뀐

㉣ 활자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여 아래위, 옆 활자의 위치에 따라 인출된 글자별로 濃淡이 다르다.

㉤ 아래 위 글자간의 간격이 고르지 않다.

예) 4월(3/6앞/5행)의 ‘修隄防開 [] 水’에서 사이 간격이 넓은

㉥ 上下邊에 접한 활자의 경우 그 높이가 邊欄보다 높이 식자되었을 경우 인출시 변란이 완전하게 찍혀지지 않고 둥근 弧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 5월(3/10뒤/11행) ‘습’

㉦ 활자를 오래 사용하여 印面의 글자 획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 2월(2/4뒤/10행)의 ‘去’자의 경우 중획이 층이 나고 횡획도 완전하지 않다.

5월(3/10뒤/8행)의 ‘十’가 중횡획 모두 어긋난다.

이러한 현상은 활자를 주조한 뒤 사용이 빈번하여 획의 偏磨耗가 일어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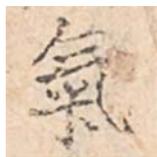
㉧ 같은 글자의 크기가 약간씩 다르거나 획의 양상이 달라진 경우가 있다. 이는 주조할 당시 字本에서 같은 글자의 다른 서체 글자를 각기 주조하였거나 주조시 획이 안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와 주조후 練磨할 때 획이 마멸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直指』에서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예) ‘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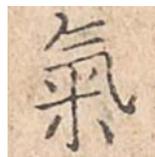
▶ 서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3월(2/11뒤/5행), 7월(4/3뒤/9행, 7앞/4행) 등

▶ 주조 결합으로 탈획인 경우 ; 2월(2/1뒤/7, 8행), 7월(4/4앞/4행),

8월(4/9뒤/9, 10행, 13뒤/2행) 등



7월(4/4앞/4행)



7월(4/3뒤/9행)

<그림 9> ‘氣’자의 鑄造失敗字와 完全字

㉨ 사용된 같은 글자의 異體字가 많은 것은 주조할 때 字本의 다양한 글자가 그대로 주조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나 이후의 활자에도 자주 보인다.

예) ‘善’ 8월(4/9뒤/2(2자), 8, 10행) 4종의 글자체가 보임

‘氣, 爲, 寅, 糞’

㉔ 활자의 주조 불량 ; 획이 바탕과 구분되지 않는다.

예) ‘前’ 5월(3/7뒤/3행)자는 오른 쪽 ‘丨’ 부수의 우측 획이 위 획과 바탕으로 연결되어
面으로 나타난다.

2. 體系書誌學的 분석

이 계미자 판본을 계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문을 축자적으로 대조한 결과 1590년의
목판본과 筆寫本을 바탕으로 비교해 본 결과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文字나
文句, 行, 文段의 추가와 脫落, 移動, 異同이 있다.

가. 引用文獻

이 책에서 이용하고 있는 典據 文獻의 경우 序文에서는 韓鄂이 참고한 자료로 『廣雅』, 『爾
雅』, 『月令』, 范勝의 『種樹之書』, 崔寔의 『試穀之法』 그밖에 『韋氏月錄』, 『齊民要術』 등을 언
급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 云’과 ‘出 ...’의 형식으로 인용문헌을 밝혀두었다.

본문에 인용된 문헌으로는 ①齊民要術, ②山居要術, ③要術, ④馬經, ⑤食經, ⑥崔寔種穀法,
⑦抱朴子, ⑧風土記, ⑨歲時記, ⑩五行書, ⑪河圖, ⑫范勝書, ⑬法地利經, ⑭方山厨錄, ⑮韋氏
月錄, ⑯齊民要術과 이 밖에 辟瘟方養生術, 搜神記, 齊諧記, 師曠占, 玉燭寶典, 家政令, 宅經
등이 인용되었다.

나. 1590년 목판본에서의 ‘種木綿法’ 추가

특히 1590년 목판본의 경우 이미 선행의 연구²⁷⁾에서 3월의 말미에 기록된 ‘種木綿法’의
내용은 전문 171字의 항목으로 중국 송 판본에는 없었던 것이며 조선에서 첨가한 것이라고
추론한 바가 있다. 그 근거로 다른 달에서의 항목 배열과 기술과는 달리 蛇足같이 침입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四時纂要』의 체제는 월별로 占卜, 時令, 禁忌, 農事, 養畜,
加工, 雜事의 순서로 편찬되었고 끝 부분에 月令을 위배하였을 때 어떤 災禍를 초래할 것이라
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種木綿法’ 항목을 이들 항목의 뒤에 위치함으로써
기본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萬國鼎²⁸⁾은 元, 明의 서적에 ‘木棉’으로 나타나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배기
술도 『農桑輯要』보다 수준이 낮고 錘을 치고 吹角하면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미신적 내

27) 繆啓愉 校釋, 『四時纂要校釋』(北京: 農業出版社, 1981), pp.107-108.

渡部武, 『四時纂要 譯注稿; 中國古歲時記の研究その二』(東京: 安田學園, 1982)渡部武, 『四時纂要
譯注稿; 中國古歲時記の研究その二』(東京: 安田學園, 1982), pp.83-84.

天野元之助, “唐の韓鄂『四時纂要について』,” 東洋史研究, 第24卷 第2號(1965), pp.204-205.

28) 萬國鼎, “農史文獻簡介; 韓鄂『四時纂要』,” 中國農報(1962年 5月 10日刊); 天野元之助, 上掲書에서
再引用

용은 이 책의 일관된 흐름과 일치하므로 北宋 初年の 家刻本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항목추가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의 증명을 위하여 閔成基²⁹⁾는 用語중 작업회수를 나타내는 ‘度’가 조선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綿’字가 ‘棉’字보다 이른 시기 즉 宋代에 사용되었다는 추정에 대하여 宋, 元, 明, 清代의 문헌을 비교하여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므로 문자에 의한 추정을 부정하였다. 또 항목 내용의 비교에서 ‘綿田治田法’, ‘綿田施肥法’ 등에서 農法의 내용을 다른 시기의 농법이나 조선의 농법과 비교하여 볼 때 慶尙左兵使 朴宣이 1590년 重刻할 당시에 이 條項을 添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 ‘種木綿法’ 조항이 이미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추론이 되었지만 이 판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癸未字本에 의하여 재검증을 해도 역시 3월의 마지막 ‘行冬令’의 항목 아래는 아무 항목도 없고 바로 卷末題로 연결되고 있다. 또 筆寫本에도 내용이 추가된 ‘行冬令’의 아래에도 ‘種木綿法’의 조항이 없다.

다. 항목의 이동

(1) 6월 ‘雜事’

이 부분의 5행은 ‘收楮實’과 ‘造法油衣油’의 사이에 위치한 항목이지만 목판본과 필사본에서는 뒤에 나오는 ‘製油衣’ 항목의 뒤, ‘季夏行春令’ 앞에 위치하여 내용은 같지만 배열이 달라서 그 底本이 달랐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각 달의 항목 배치를 보면 이 항목은 ‘季夏行春令’ 앞에 위치하는 것이 구성 체제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6월 ‘種柳’

이 부분 1행은 1590년 목판본에서는 이 항목보다 4항목 앞인 ‘晚瓜早稻’의 뒤에 배치되어 있다. 이 항목의 내용 “是月取春生少枝種之 皮清氣壯長倍疾” 중에서 마지막 字인 ‘疾’은 목판본과 필사본에서 모두 ‘矣’이며 문장으로 볼 때도 종결사가 되어야 하며 이는 활자로 조판할 때의 植字를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열의 체계에서도 다른 두 판본이 ‘種□□’를 모은 점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3) 6월 ‘種蕎麥’

이 부분의 3행은 제3권 즉 6월의 맨 마지막에 배열된 것으로 “立秋在六月即秋前十日種 立秋在七月即秋後十日種 定秋之遲疾宜細詳之”이며 이 내용은 1590년 목판본과 필사본에서는 모두 앞의 ‘罷黃衣’ 뒤에 배치하였다. 항목배열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行冬令’ 뒤에 배치되는 것은 이 계미자본의 底本 문제인지 조판 후 교정시에 누락 항목을 발견하고 추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原文書誌學的 분석

29)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서울: 一潮閣, 1988), pp.264-285.

가. 本文의 校勘

(1) 誤字

이 판본을 목판본(1590년)과 필사본 등으로 대교하여 보면 서로 차이 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중에는 분명한 誤字와 版本의 계통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분명한 誤字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3월(2/12앞/7행)의 ‘父~~母~~’는 ‘父母’의 誤字일 것이다.
- ▶ 5월(3/7뒤/2행) ‘出行日’ 항목중 “自芒種後 十六 [目] 謂之往亡”에서 [目] 은 ‘日’字의 誤字로 植字할 때의 착시현상으로 추정된다.
- ▶ 7월(4/6뒤/2행)의 ‘一斤’도 1590년 목판본에서는 ‘一升’으로 서로 글자의 형태가 비슷하여 발생한 착시의 오류로 판단된다.
- ▶ 항목의 제목이 음각으로 새겨진 墨介字에서 誤字가 있어 7월(4/1앞/7행)의 ‘[占] 雷雨’에서 ‘占’이 ‘畝’자로 잘못 새겨져 있다. 등

(2) 略字, 異體字, 通用字 등

① 略字, 異體字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한자의 略字로 표기된 것이 많아서 ‘糶, 糶’의 경우 ‘糶, 糶’의 글자로 대신하고 있다. 또 간지에 있어서 ‘癸’자를 ‘兕’로 대신하였고, ‘離’자 대신 ‘离’(5월(4/7앞/1-3행))를 사용하였다. 본문 전체에서는 약자는 물론 이체자의 사용도 빈번하다.

- ▶ ‘獸’(5월(3/7앞/8행))은 ‘獸’자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 ▶ ‘那’(8월(4/12앞/2행))은 ‘那’의 이체자이다. 등

② 通用字

이에 해당하는 것은 유사한 글자나 의미를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 예 주에서 4월(3/5뒤/6행)의 ‘池底’의 경우는 ‘池底’가 타당할 것으로 ‘底(숫돌, 다다르다)’는 ‘底(바닥)’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통용하여 쓰고 있다. 또 10월(5/5뒤/6행)의 ‘底平闊’에서도 ‘底’가 타당하고 같은 의미에서 바로 다음 줄 7행에서 ‘每底輕塗少漆’에서는 본래의 正字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바로 옆줄의 글자로 잘못 식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예는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서 간지에서 ‘寅’이 ‘寅(조심할 인)’으로 쓰인 경우(7월(4/2뒤/10행))의 ‘甲寅’, ‘庚寅’, 7월(4/3앞/7행)의 ‘壬寅’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쓴 경우 등 전반에 걸쳐 그 예가 확인된다. 또 7월(4/1앞/9행)에서는 ‘庚寅’으로 서로 혼용되고 있다. 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暝(8월(4/9앞/8행), (10월(5/1앞/3행))’자는 목판본에서 ‘昏’로 바뀌었다.
- ▶ 很(고을이름, 어그러질 한)과 很(거스를 혼)도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 ▶ ‘災’와 ‘灾’는 같은 글자로 5월(3/6앞/6행)에서는 ‘灾’를 사용하였다.
- ▶ 6월(3/19앞/6행)의 ‘太’자도 1590년 목판본에서 ‘大’자와 통용하는 글자이다.

▶ 7월(4/1뒤/2행)의 ‘恠(기이할 괴)’도 1590년 목판본에서의 ‘怪’와 통용하였다.

〈표 6〉 계미자본에서 나타나는 이체자 예시

계미자	통용자								
糝	糴	塩	鹽	糶	糶	疋	匹	着	著
昏	昏	个	介	很	很	樓	樓	冚	最
虫/虫	蟲	尔	爾	勾	勾	灑	洒	罌	剛
离	離	豎	豎	雞	鷄	膝	脛	條	条
馱	馱	間	間	壓	壓	飴	飯	脉	脈
煞	殺	虵	蛇	蔭	陰	梨	藜	飴	飴
灾	災	刺	刺	牙	芽	臍	臍	浸	浸
蚕	蠶								

③ 避諱字

이 용례는 ‘匡(9월, 4/18앞/1행)’자의 마지막 획을 결획 처리한 것으로 중국 宋 황제 중 ‘趙匡胤’을 피휘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匡’자가 포함된 다른 글자인 ‘筐(2월, 2/9뒤/10행)’에서는 결획하지 않았다. 또 같은 관, 같은 활자로 찍었던 『宋朝表淺總類』,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에서도 같은 글자의 피휘가 확인되었지만 같은 활자는 아닌 다른 서체이다. 이러한 避諱의 적용은 活字本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주로 木版本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활자본에서는 피휘가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추론한다면 계미자의 경우 활자를 주조할 때 그 대상으로 삼은 글자체의 底本은 宋版本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이 癸未字로 책을 찍었을 때 주조된 大字에 이미 그 이전인 고려시대의 書籍院에 보관하고 있었던 활자를 보충자로 사용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匡’자의 피휘도 이 小字가 바로 고려시대의 활자임을 방증하는 자료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 계미자를 주조할 때 經筵에 소장된 古注本 『詩』·『書』·『左氏傳』을 字本으로 삼았을 때의 책이 송판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宋版의 글자를 字本으로 그대로 조성하였다면 피휘가 그대로 주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저본의 피휘를 근거로 하여 활자의 주조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④ 未詳字 및 脫字

본문에 쓰인 글자 중 확인되지 않는 글자와 조판에 있어서 탈자로 추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𠂔’(1월(1/13뒤/9행))은 ‘牛’의 이체자내지 誤字로 추정된다.
- ▶ 6월(3/20앞/6행)의 注 부분에 ‘[]槌槌破去皮子’에서 []부분은 ‘一’자가 식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공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1590년 목판본에는 ‘一槌’이 본 문자로 포함되어 계미자본의 체제와 다르다.

나. 癸未字本과 1590년 木版本의 본문 비교

<표 7> 판본별 문자와 문장의 異同, 移動 비교 예시(各月 2例)

월	위치	계미자본	목판본	비고
1	1/13앞/4행	案太史曰(墨蓋子 항목)	案太史曰(본문)	體變
1	1/13뒤/8행	水前取汁	水煎取汁	誤字
2	2/3뒤/3행	冬壬子癸亥	春甲子乙亥	換
2	2/8앞/5행	椒醬同搗脫作	椒醬脫作	脫洛
3	2/10뒤/6행	季春	春季	倒置
3	2/12앞/7행	寅卯女妨	寅申妨	誤,脫
4	3/1앞/6행	秋黍貴風從東南	秋黍賤風從東南	誤字
4	3/2뒤/6행	已上並不可遠行(특소자)	已上並不可遠行(소자)	改文
5	3/1앞/11행	是月北行	是月天道北行	追加
5	3/7뒤/11행	此月生人不可娶 八月二月	此月生男不可娶 二月八月	代,倒
6	3/15앞/3행	孤寡水命女凶	孤寡木命女凶 水命女大凶	追加
6	3/15뒤/5행	辛未小嘉徵姓百日與年利	辛未小嘉徵吉年與日利	脫字
7	4/2앞/9행	不行西犯王方	不西行犯王方	倒置
7	4/2뒤/4행	鬼神不見 可爲百事	鬼神不見 百事可爲	倒置
8	4/10뒤/6행	不可娶 十一月五月 生女	不可娶 五月十一月 生女	倒置
8	4/11앞 4행	斬草日丙寅	斬草丙寅	脫字
9	4/16뒤/2행	子爲歸忌	丑爲歸忌	誤字
9	4/16뒤/11행	此月生人 不娶	此月生男 不可娶	代,脫
10	5/1앞/3행	是月東行修造	是月天道東行修造	脫字
10	5/1뒤/10행	東南小麥貴	東南來小麥貴	脫字
11	5/1앞/1행	建子大雪卽	建子自大雪卽	脫字
11	5/7뒤/8행	三日壬平 四日壬 五穀	三日壬平常 四日壬 五穀	脫字
12	5/11뒤/1행	此月生人 不取	此月生男 不可娶	誤,脫
12	5/13앞/10행	末五升 塩五升 好酒少許	末五升 好酒小許 塩五升	倒句

<표 8> 판본별 특소자 주석 차이 예시

위치	1590 울산좌병영본	계미자본	필사본
4월 「立夏雜占」 ①	法同正月	同正月注	同正月法
4월 「立夏雜占」 ②	法同正月	注同正月	同正月法
4월 「月內吉凶地」	注具正月	左同	法具正月
4월 「出行日」	己具正月注中	己具正月注中	己具正月法中
4월 「種穀」	法具工月	法具二月	左同
5월 「獸鎮」	己具正月門中	己具正月[注]中	己具正月中
6월 「月內吉凶地」	並解具正月門中	法解具正月	并具正月門中

앞의 표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주석의 경우에도 계미자본과 1590년의 목판본 사이에도 글자와 語句, 文章 등에서 서로 달라진 점이 많고 그 밖에 일일이 표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干支가 고쳐진 부분이 자주 보인다. 이는 바탕이 된 底本의 차이로 보이지만 책을 간행할 때 수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중 어느 판본이 가장 正本에 가까운지 구분하기 어렵고 부분적인 문장이나 語句의 구조로서 일부 구분이 가능하지만 干支나 物名과 같은 경우 비교할 대상이 없으므로 본문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현존하는 같은 주제 他本 즉 『齊民要術』, 『農桑輯要』 등을 통하여 일부를 재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판본상의 기본적인 차이와 활자본으로서 특징을 밝히는 데 치중할 뿐이다.

Ⅵ. 癸未字의 구조 기록과 현존본

1. 계미자의 구조 기록

『四時纂要』를 인출하는데 사용된 계미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1403년 유생들에게 서적을 보급할 목적으로 새로 주자소를 설치한 太宗은 신하들에게 금속활자 구조를 명하였다. 이에 經筵廳에 소장된 古注가 붙은 『詩』·『書』·『左氏傳』을 字本으로 하여 수십만 개의 크고 작은 銅活字를 구조하고 이는 조선시대 최초의 銅活字로서 구조된 해의 干支를 붙여 ‘癸未字’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계미자를 이루는 데는 1403년 2월 19일에 구조가 시작되어 수 개월이 걸려 10여만자를 구조하였다.³⁰⁾ 이 때 왕이 나라에 서적이 드물어 儒生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새로 鑄字所를 설치하라고 명하고 당시 참여한 인물을 보면 감독관으로 判司平府事 李稷·驪城君 閔無疾·知申事 朴錫命·右代言 李膺과 실무자로 軍資監 姜天霍·長興庫使 金莊侃·代言司 注書 柳萇·壽寧府 丞 金爲民·校書著作郎 朴允英 등이 참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內府의 銅鐵을 많이 내놓고, 또 종친과 大小臣僚에게 자원해서 동철을 내어 그 비용을 대게 하였다.³¹⁾

이와 같이 왕과 조정의 적극적인 관여에도 불구하고 계미자는 구조 당시부터 조정 일부의 부정적 인식과 초기 활자 인쇄의 기술적인 어려움이었던 구조된 활자의 組版과 印出 방법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초기 계미자를 이용한 인본의 인출은 銅印版에 밀랍을 녹여 붓고 활자를 식자한 후 활자가

30) 權近, 「鑄字跋」, 『陽村先生文集』 卷22

31) 『太宗實錄』 5卷, 1403年(太宗 3) 2月 13日 庚申條

고정되기를 기다린 다음 인출을 하지만, 겨우 두어 장을 찍어내면 활자가 치우치거나 삐뚤게 되어 인출하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³²⁾

이러한 활자의 형태와 조판의 폐단을 염려하여 일찍이 李蕝에게 고쳐 만들기를 명하여 이천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왕의 강요에 따라 힘들게 지혜를 내어 板을 만들고 글자를 鑄造하니 모두 평평하고 똑바르며 견고하여 비록 밀을 쓰지 않고 많이 인출하여도 글자가 비뚤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되었다. 당시 대군들은 큰 글자로 改鑄하여 책을 인출하여 보자고 청하였고 세종도 활자구조와 책의 인쇄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이천에게 명하여 일을 감독하게 하고, 集賢殿直提學 金墩·直殿 金鑣·護軍 蔣英實·僉知司譯院事 李世衡·舍人 鄭陟·注簿 李純之 등에게 일을 맡기고, 經筵 소장 『孝順事實』·『爲善陰鷲』·『論語』 등의 책을 字本으로 삼고, 부족한 것은 晉陽大君 瑑[世祖]에게 명하여 쓰도록 하였다. 鑄字 20여 만자를 만드니 이것으로 하루에 인출한 양이 40여 장[紙]이었으며, 字體가 깨끗하고 바르고, 일하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³³⁾

이와 같은 초기 활자의 鑄造와 組版, 印出에서의 어려움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재미자는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높낮이도 일정하지 않아 조판이 어려웠고 밀랍을 부어 고정하는 데도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시작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아래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예정책을 펼치는 힘든 정책추진과 실천과정 그리고 실제상의 기술적인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왕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 재미자가 문풍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 재미자는 印本에 의하여 지금까지 대자, 소자, 특소자, 극소자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그 글자의 서체에 대해서 歐陽詢의 楷字體는 관점과 宋本의 전형적인 歐陽詢의 率更體를 따른 浙本 서체와는 구별되고, 蜀本 중 方筆의 率更體를 바탕으로 顏·柳의 圓筆의 느낌이 가미되었다는 입장도 있다.

2. 癸未字의 現存本

현재까지 알려진 재미자의 인본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소자본은 『陶隱先生詩集』,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地理全書洞林照膽經』와 『四時纂要』이다.

32) 『世宗實錄』 65卷, 1434年 7月 2日 丁丑條

33) 上揭書, 同面

〈표 9〉 계미자 인본 리스트

서명	권차	수량	간행년도	소장처	행자수	비고
① 『陶隱先生詩集』	卷1	1冊	太宗6년(1406) 10月	구 성암고서박물관		小字本
	卷3	1冊	太宗6년(1406) 10月	故 김완섭		小字本
② 『十七史纂古今通要』	卷11, 12	2冊		故 大塚鑑	8行 17字	大·小字本
	卷16	1冊	太宗12년(1412) 7月	서울대 규장각		大·小字本 국보148호
	卷17	1冊	太宗12년(1412) 7月	국립중앙도서관		大·小字本
	卷17	1張	太宗12년(1412) 7月	청주고인쇄박물관		大·小字本
③ 『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卷4·5	1冊	太宗朝(1401~1418)	간송미술관		大字本 국보 제149-1호
	卷6	1冊	太宗朝(1401~1418)	구 성암고서박물관	8行 17字	大字本 국보 제149-2호
	卷6	1張	太宗朝(1401~1418)	영남대	8行 17字	大字本
④ 『纂圖互註周禮』	卷1·2	1冊		일본국회도서관		大·小字本
⑤ 『宋朝表箋總類』	卷6~11	1冊	太宗朝(1401~1418)	리움미술관		大·小字本
	卷7	1冊	太宗朝(1401~1418)	서울대 규장각	8行 21字	大·小字本 국보 제150호
	卷1~2	1冊	太宗朝(1401~1418)	청주고인쇄박물관	8行 21字	大·小字本
⑥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5·6	1冊		구 성암고서박물관	11行 19字	小字本
	卷7·8	1冊		개인소장		小字本
⑦ 『地理全書洞林照瞻經』	卷上·下	1冊		구 성암고서박물관		小字本
⑧ 『四時纂要』	卷1-5	1冊		개인소장	11行 19字	小字本
⑨ 『通鑑續編』 序文	序文	4張		개인소장	8行 17字	大字本 국보 제283호
⑩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序文	序文	2張	世宗朝	범우사	8行 字數 不定	大字本

VII.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四時纂要』는 조선 초기 주자소에서 태종의 명에 의해 조선시대 처음으로 주조된 계미자의 小字를 이용하여 찍어내었던 농서로 처음 발견된 자료이며 경북 예천의 南嶽(金復一) 宗宅의 소장본이다. 이 계미자 소장본 『四時纂要』의 서지학적 특징과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直指』와 마찬가지로 癸未字本은 글자의 크기가 고르지 않아 옆줄이 맞지 않고 한 줄 내에서 글자의 수도 19-20자로 차이가 난다. 아래위의 줄도 바르지 않고 글자가 좌우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다.

2) 小字本에 사용된 활자는 본문에 사용된 小字의 2종류와 注에 사용된 特小字, 極小字로 분류되고 극소자의 경우 진하게 찍힌 印面으로 미루어 목활자일 가능성도 있다. 小字 중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필서체의 글자는 고려활자로 추정된다.

3) 이 책에 사용된 활자는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本文字 『十七史纂古今通要』의

작은 자, 『宋朝表牋總類』, 『纂圖互注周禮』 등의 작은자로서 여러 판본에서 같은 유형으로 사용되었다.

4) 注에서 사용된 활자는 特小字와 極小字가 혼합된 형태로 활자의 높낮이나 규격이 같지 않아 그 印面의 濃淡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5) 특정 부분의 글자에서 활자의 뒷면 印影이 인쇄되어 계미자 小字의 크기와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즉 ‘一’자의 뒤집혀 植字된 후 먹이 발라져 글자의 반대편 형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 그 형태는 證道歌字 ‘一’자의 뒷면과 같아서 가장자리의 테두리에 가운데 부분은 불규칙한 흠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龕’자의 경우 좌측 가장자리가 획과 닿아있고 전체의 형상은 모서리가 타원형으로 나타난다.

6) 본문의 글자는 교정이 완전하지 않아 誤字와 脫字가 자주 나타난다.

7) 전체의 조판 판형은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와 같은 판을 사용하여 그 규격이 같고 테두리와 계선의 훼손된 부분까지 일치한다. 전체의 사용 판수는 4판이나 文選對策의 경우와 같이 판을 돌려서 조판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8) 각 달별 항목을 표시하는 墨蓋子는 목활자로 제작되었고 같은 項目題에 대체로 2-3종을 반복 사용하였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표기가 다른 것도 있다. 墨蓋子の 글자가 2-6자까지 連刻되어 있으므로 조판에 있어서 行의 아래 부분은 墨蓋子를 끼워넣지 못할 경우 공간을 두고 改行으로 처리하였다.

9) 본문과 주에는 略字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異體字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현상의 분석을 통하여 계미자 소자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판본은 동북아 농업사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조선시대 중앙주도의 금속활자 인쇄에 있어서 그 기술적 수준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이 개국한 후에 국가차원의 제도 정비, 학문적 기반조성, 농업생산의 확대 등을 통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의 수단이 되는 관련 문헌의 편찬과 보급차원에서 금속활자 인쇄가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미자를 통한 출판활동은 고려시대의 뛰어난 금속활자 구조와 조판, 인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후 세종에 의하여 기술적 개량을 거듭한 끝에 본격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향후 한 단계 진전된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계미자와 고려활자와의 관계를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으로 활자의 서체분류, 각 인본들의 사용 글자와 인출 양상을 체계화하는 미시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고려로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금속활자 인쇄의 발달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김성수. 2017. “계미자 번각본의 간행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藤本行夫. 2017. “일본 현존 계미자 활자 인본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1,12에 대하여.”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藤本行夫. 2017. “일본 현존 계미자 활자 인본 찬도호주주례 권1,2에 대하여.”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1』.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손보기. 1970.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III』; 科學·技術史.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옥영정. 2017.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과 여말선초의 금속활자 인쇄.”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1』.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윤병태. 1992. “朝鮮의 活字印刷 出版文化.” 『恒心尹炳泰博士停年紀念論文集; 韓國書誌學論集』.
- 이승철. 2017. “계미자 대, 소자의 자형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조병순. 1992.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第7號.
- 조병순. 1993. “癸未字 字數와 小字 起源에 對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第11號.
- 조병순. 1990. “癸未字本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계미자본 조판술의 잔영과 인출능력.” 『季刊書誌學報』 第1號.
- 조병순. 1996. “高麗書籍院 活字에 對한 研究; 所謂 癸未字本 組版術을 中心으로.” 『書誌學報』 第18號.
- 天野元之助. 1995. “唐의 韓鄂 『四時纂要』에 對하여.” 『東洋史研究』 第24卷 第2號.
- 천혜봉. 1994. “癸未字本 《宋朝表牋總類》 解題.” 『奎章閣』 第16輯.
- 천혜봉. 1974. “癸未字와 그 刊本; 國寶指定 및 新發見 刊本을 포함한 綜合的 考察.” 『書誌學』 第6號.
- 천혜봉. 1986. “癸未字本 <十七史纂古今通要> 解題.” 『奎章閣』 第9輯.

<단행본>

- 김두중. 1974.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 渡部武. 1982. 『四時纂要 譯注稿 ; 中國古歲時記の研究その二』. 東京: 安田學園.
 閔成基. 1988. 操船農業史研究. 서울: 一潮閣.
 石聲漢 著, 渡部武 譯. 1984. 『中國農書が語る2100年 ; 中國古代農書評介』. 東京: 思索社.
 손보기. 1982. 『새판 한국의 고활자』. 서울: 寶晉齋.
 千惠鳳. 1990.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韓鄂 原編, 繆啓愉 校釋. 1981. 『四時纂要校釋』. 北京: 農業出版社.
 韓鄂. 1961. 『(影印本) 四時纂要』. 東京: 山本書店.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rticle>

- Cho, Byung-Sun. 1992. "A Study About Which Books Did the Letters of Gyemi Metal Movable-type Came From." *Quarterly Seojihakbo*, No.7.
 Cho, Byung-Sun. 1993. "A Study on the Number and Origination of Small Letters of Gyemi Metal Movable-Type." *Quarterly Seojihakbo*, No.11.
 Cho, Byung-Sun. 1996. "A Study on Goryeoseojeokwon Metal Movable-Type Based on the Typesetting of Gyemi metal movable-type." *Quarterly Seojihakbo*, No.18.
 Chun, Hye-Bong. 1974. "A Comprehensive Study on National Treasures and Newly Discovered Books Related Gyemi Metal Movable-Type and Its Version." *Seojihak*, No.6.
 Chun, Hye-Bong. 1986. "An Analysis of Sipchilsachangogumtongyo." *Gyujanggak*, No.9(1986).
 Chun, Hye-Bong. 1994. "An Analysis on Gyemi Metal Movable-Type Version Songjop-yojunchongryu." *Gyujanggak*, No.16.
 Fujimoto, Yukio. 2017. *An Bibliographic Analysis on Gyemi Metal Movable-type Chandohojurye 1 and 2 in Japan -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Metal Movable-Type Printing and Print Culture in East Asia II*. Seong nam: AKS.
 Fujimoto, Yukio. 2017. *An Bibliographic Analysis on Gyemi metal movable-type Sibchilsachangogumtongyo 11 and 12 in Japan - The Origin and Creativity of Metal Movable-Type Printing Culture II*. Seong nam: AKS.
 Kim, Sung-Soo. 2017. *An Analytic Study on the Publication of Gyemi Metal Movable-Type Woodblock-Printed Version -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Metal Movable-Type Printing and Print Culture in East Asia II. Seong nam: AKS.

Lee, Seung-Chul. 2017. A Study on the typeface of Gyemi Metal Movable-Type -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Metal Movable-Type Printing and Print Culture in East Asia II. Seong nam: AKS.

Ok, Young-Jeong. 2017. *Metal Movable-Type Printing in Late Goryeo Dynasty and Early Joseon Dynasty and Singanyupunyeokgeosamgangmunseon -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Metal Movable-Type Printing and Print Culture in East Asia II*. Seong nam: AKS.

Son, Bo-Gi. 1970. *Printing History of Korea - Culture History of Korea III ;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RIKS Korea University.

Yoon, Byung-Tae. 1992. "Movable Type Printing Culture of Joseon Dynasty." *Essays in Celebartion of Hangsim Yoon Byung Tae ; Essays of Korean Bibliography*.

<Book>

Chun, Hye-Bong. 1990. *The Printing History of Books*. Seoul: Beomwoosa.

Gan gaku. 1961. *Sizisanyo (reprinted edition)*. Tokyo: YamamotoShoten.

Han-e, Mouqiyu Annotation. 1981. *Contrast and Annotation of SiShiZuanYao*, Beijing; Nongyi press.

Kim, Du-Jong. 1974. *The Early Printing history of Korea*. Seoul: Tamgudang.

Min, Seong-Gi. 1988. *A Study on the Agriculture of Joseon Dynasty*. Seoul: Iljogak.

Son, Bo-gi. 1982. *The Early Korean Typography*. Seoul: Bojinjae.